



[시장동향] 아일랜드 소비자 72% “낙농 지속가능성 향상시 높은 가격 지불 의향”

- 낙농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관심 높아져



아일랜드에서 낙농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럽우유포럼(EMF)이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가 낙농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경우 유제품 구매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4%는 낙농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69%는 낙농업이 농촌 지역 사회에 필수적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67%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낙농업계의 노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목초지 기반 생산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낙농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수질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은 물론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 비료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계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낙농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낙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agriland.ie, 5월 11일 >

[교역동향] 뉴질랜드, 캐나다에 유제품 교역 분쟁해결 절차 개시

- 뉴질랜드, “캐나다 CPTPP 유제품 무관세 할당량 미소진에 따른 손실 확대”



뉴질랜드가 캐나다에 대해 유제품 수출 쿼터(할당량)를 둘러싸고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된 가운데, 최근 뉴질랜드는 캐나다가 유제품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소진하지 않고 있어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업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지난 6일 캐나다에 분쟁 협상 요청서를 제출했다.

뉴질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첫 2년간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시장의 손실액은 약 6천 8백만 달러(NZD, 약 546억 원)로 CPTPP 규정에 따라 해마다 무관세 할당량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손실액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캐나다가 협정에 따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캐나다는 7일 이내 답변을 제출해야하며 그 후 양측은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 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나, 캐나다의 회신이 없을 경우 뉴질랜드는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출처 : ajot.com, 5월 11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